

“만인에 봉사함이 참 불공”

백련문화재단, 성철 스님 불교개혁론 조명

“우리 종단은 그동안 갖가지 병폐가 누적돼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뜻있는 이들은 걱정해왔다. 우리 종단을 일대 혁신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앞날은 도저히 발전을 기할 수 없고 마침내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지난 100년간 한국불교에서는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이래로 많은 스님들의 다양한 개혁안들이 등장해 바른 불교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했다. 한국불교의 성철 스님도 종정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1980년 12월 불교신문에 종단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시 10·27법난으로 위기에 놓여있던 한국불교의 바른 모습을 찾고자 토해냈던 그 사자후가 30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불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2월 14일 ‘한국불교 개혁론 100년과 성철스님의 개혁론’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불교개혁론을 조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1980년에 발표된 성철 스님의 종단개혁론’을 통해 성철 스님이 제안한 승려교육, 법사제도, 재정개혁, 중앙관리 제도를 고찰했다.

김경집 교수는 “성철 스님은 모순을 거부하고 과감하게 바꾸고자 노력했다. 그런 노력의 목표는 승단의 본분을 지키는 것으로 부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올곧은 수행 풍토의 정립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이 불교신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개혁방안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행해온 신



성철 스님은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앙이 아닌 만인에 봉사하는 신앙을 제시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앙관을 전환하자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신앙적 대상에게 행하던 불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불공의 제시였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의 신앙에 대한 개혁은 한국불교가 사회를 위한 신앙으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스님 스스로는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실만한 결사에서 여러 불필요한 신앙적 대상을 정리해 승가의 수행풍토를 변화시켰다. 스님의 개

혁방안은 불자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참불자로 살아갈 것인지 길을 열어준다.

스님은 그 뿐만이 아닌 교단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개혁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교육을 통한 우수한 수행자 양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방향을 예견 할 수 있어야 하고, 포교를 위한 인재를 양성해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그리고 재화의 올바른 사용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조해 불교의 사회적 지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불교계 스스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순의 극복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스님의 개혁론을 볼 때 스님이 포교에 얼마나 고심했고, 산중에 수행하면서도 불교의 사회적 발전을 위해 고심했는지 짐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식 교수는 ‘근현대 불교개혁론의 지평’을 통해 근현대 불교개혁론을 연구하기에 앞서 “개혁론은 그 자체로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도 같기에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요청된다”며 관계 학자들의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는 “1980년대 10·27법난을 겪으며 불교계에서는 각성 자주의 흐름이 강력하게 등장했다”며 “이런 흐름은 특히 불교계 외부에 나타난 민주화의 세례를 받고 불교의 민주화 불교의 사회화를 주장하며 불교 모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근현대 개혁의 흐름은 다면적인 활동과 성격이 개재된 것”이라며 △발표된 시집·장소 △발표된 형식 △생산 여건 △조력자, 동지사, 동참자 △준속기간 △영향 △과장 △성과 △제도화 등 세분화해 개혁론을 연구할 것을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보수와 진보 △포교 이념 △노선의 일관성 △현실인식 △대안제시 측면에서 개혁론의 사상적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naver.com

“해탈과 정의 추구 같다”

<正義>

박경준 교수, 불교 근본 지향점은 사회참여 주장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냐는 질문에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이유를 ‘정의에 대한 배고픔’이라 표현했다.

5000만의 한국인들은 아노미 현상(사회규범의 변화에 의한 혼란상태)을 겪고 있다. 북한과의 전쟁은 옳은가? 4대강은 진행해야 하는가? 신문을 펼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논쟁거리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에 대한 답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무엇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중생들의 번뇌에 불교는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박경준 교수는 최근 출간한 <불교사회경제사상>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옳다는 것, 요컨대 ‘불교의 정의(正義)’에 대해 정의하고 그 답을 내놓고자 했다.

파사현정이 불교다

불교의 현실 참여를 학문적 과제로 연구해 온 박 교수가 말하는 ‘정의’란 보편적인 진리의 실현과 동시에 중생들이 고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생사해탈을 추구하는 것과 공동체의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불교는 자리아타(自利利他),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종교다. 중생제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지향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교는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해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박 교수는 그 원인에 대해 “대중적 삶과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당



박경준 교수

연시 한 일부 선가의 시대착오적 풍토에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교인 스스로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회·문화적 이념의 계발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불법이 산중, 경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최근 불교계가 겪고 있는 불교평화와 자주성 훼손이란 측면에서 인근 사찰을 찾아 기도 올리는 수많은 불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박 교수의 지론에 따르면 불자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과감히 개혁하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정법을 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인의 수행에만 매진해 더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 자체는 정법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 근간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공업설을 제시했다. 개인 운명은 개인적인 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공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대만열반경>의 ‘교진여품’을 예로 들었다. 교진여품에서는 “일체중생이 현재에 4대와 시절, 토지와 인민들로 인해 고통과 안락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일체중생이 모두 과거의 분업만으로 인해 고통과 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설하느니라”고 설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승열반경>에서 이뤄진 업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인도사회가 전쟁 등으로 예측 불허의 돌발사태가 잦고 혼란스러웠으며, 불교교단 내부적으로도 무사안일주의의 팽배와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배경에서 나왔음을 주목했다.

박 교수는 “어지럽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업보 윤회 사상만으로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능동적인 대처가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중불교 정신 계승해야

사회 각 사안에 대한 불교계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박 교수의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에 대한 조망에까지 미친다.

박 교수는 “민중불교운동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민중이 체했었던 사회적 고통에 대한 불교적 성찰이자 사회실천운동이었다”며 “그 짧은 역사에도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종단들의 체질변화와 불교시민단체의 태동이 그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중불교운동의 이념을 계승해 사회적 실천을 통한 세계 완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귀명수 (鼓龜命數: 육임운명판단법)” 할인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 (曉史活人天役集: 육임종합 CD프로그램)” 리콜 (무료) 실시!

“본회 사이트 첫 화면에 아래 - =의 ‘활용효과성’을 위한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리콜 실시 안내



1. 정가: 5백만원
2. 기능: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리콜(무료교환) 대상: 가. 효사활인천역집 2010년완결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나. 효사활인천역집 2010년완결보정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다. 효사육임사주감정법 (대,세,일 순배치 오류 발견 됨)
4. 리콜이유: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가택·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복골’ 여부·‘수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木·火·土·金·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승) 승고 싶을 일인가? 아)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2·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보강·삭제 시켰으므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위 1항 대상의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I·II·III C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환 시기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금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6. 2010.12.13일 - 12.31일 동안만 할인가 2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분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 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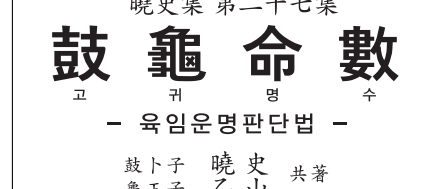
메일메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 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질병 관계 / 직업·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음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모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친구(親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중년·말년 길흉 및 육신 불행 관계 / 초·중·말년 12작사귀·12병귀·침범관계 / 신변·가택·초·중·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

(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였는가? 관계 / 묘지속 ‘뱀굴’·‘복골’·‘수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색정·생사별·사고·사건 관계 / 12궁위(本命·財·兄弟·老宅·子息·奴業·夫婦·病危·遷移·官職·後福德·相親)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신속도·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부터 이 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型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후·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통권 1면·순번6번·602자·매일별 60권 / A4·A3 크기 중 선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책 값은 3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겠기에 2010년 12월 13일 - 12월 31일 사이 동안만 150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저의 각 활용서(개정비밀서리)를 살비에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庚寅 仲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학습서를 읽니다. 육임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 | | | |
|---|---|---|---|
| <p>활용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개정비밀서리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후대용)·효사육임복원집(좌정용) • 도사에게 물어봐(2011 중보판) • 출산길일길사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공수(2011 개정판) • 육임 1년산수비법(2011 개정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임개정비법(중보개편판·후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성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표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2011 개정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사활인 천역집(2011년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원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2011 개정판) | <p>학습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상권: 육임각법종합공수 / 2050쪽(학술용) ·하권: 육임서·역대저자 머리글 / 육대묘문답 / 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상지표 /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각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당정 수록 / 2015쪽(임상용) |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www.taotemple.net